메타버스 · 비대면 플랫폼 각광

2021 신행 · 포교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대면 전법 포교 '끝판왕'
플랫폼 직접 개발도 박차
수행통한 포교 '상월결사'
순례성료, 중흥동력 형성
포교원장 범해 스님 비롯
군종교구장 등 수장 취임

포교 · 신행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뉴미디어 전법 포교가 활성화된 한해였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 최대 청소년축제인 제13회 나란다축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활용해 삼보사찰을 구현했다. 11월 15일부터 송광사 등 로블록스 내에 구현된 맵에서 청소년들은 나란다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도 8월 12일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키도 했다.

서산 보원사는 제11회 내포 가야산 산사예술제의 일환으로 7월 25일과 8월 1일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보원사지 복원대회를 열기도 했고, 자비명상(이사장 마가)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도 8월 14일 칠석을 맞아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명상 심리과정 '칠석브릿지'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전법 포교현장의 변화 속에 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도 메타버스 플랫폼 연구에 착수했다. 동국대는 '비대면 사회에서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 · 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 연구를 진행, 이를 전담하는 '명상메타버스플랫폼기획연구단'(단장 김관규)을 출범시켰다.

비대면 방식의 전법포교가 활성화되며 올해 봉정된 〈불교성전〉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급됐다. 기존 책자 형태의 〈불교성전〉에서 벗어나 8월 9일에는 e북 형태의 〈불교성전〉이 출간됐다. e북 형태로 된 〈불교성전〉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월정사 스님들이 VR장비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기존 종이로 된 〈불교성전〉은 불교경전 핵심을 최대한 추렸지만 어쩔 수 없이 총 704페이지에 달하는 부피를 자랑했다. 보급 후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교성전〉을 수지독송 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불교성전〉 보급을 주관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조계종 출판사는 점자형태로 된 장애인용 〈불교성전〉이나 오디오북 등도 함께 출간 준비 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성전 내용을 발췌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고,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버전도 만들었다. 포교원은 유튜브 채널에 불교성전 영상을 올려 사부대중이 법회를 비롯해 전법과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 극복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큰 관심 속에 원만 회향한 것도 신행 포교분야에서 성과였다.

상월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3년째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송광사에서 입재한 삼보순례단은 해인사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거치며 총 19일간 423km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찾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각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나와 불교의 숭고한 정신을 공감하고, 국난극복을 함께 염원했다.

이러한 의미에 불자들의 상월결사 정진을 이은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11월 2일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이 동국대에서 개막해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30억여원의 모연액이 모여 불교단체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불연맺기인 수미산원정대에서는 10월 28일 1기 졸업식과 2기 입학식이 진행됐으며, 12월 9일 동문회도 출범했다.

10월 23일 서울 수국사에서는 상월청년회 1기 회향과 2기 입재식이 열렸으며, 동안거 기간을 맞아 상월선원 무문관 수행을 따르는 특별재가자 정진도 입재했다. 부처님 성지인 인도에서 만행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결사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조계종단의 포교 일선을 총책임하는 수장인 조계종 포교원장에 범해 스님이 취임한 것도 포교일선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4월 22일 8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범해 스님은 청소년 포교 등 포교활동가로 활동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포교종책을 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포교원은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전략종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포교에서는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7월 21일 임명됐다. 사상 첫 군법사 출신인 선일 스님 취임과 함께 제5대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법사 충원, 홍제사 불사, 노후법당 개선 등 산적한 군포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밖에 12월 16일 김영덕 제12대 포교사단장 취임, 2월 27일 장정화 제31대 대한불교청년회장 취임 등 불교 포교전법을 이끄는 이들의 등장으로 새해 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포교 핵심동력으로 발돋움"

포교사단, 16일 이 · 취임식
김영석 제12대 단장 취임해
첫단장 · 지역단장 동시임명
범해 스님 "사찰 연계" 당부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12대 김영석 포교사단장 및 12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포교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을 천명했다.

포교사단은 1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1대 방창덕 단장 및 12대 김영석 단장의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포교사단 창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단장 이취임식과 지역단 동시 임명식이었다.

이취임식에는 포교사단 총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선업스님 및 국장단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전국 포교사단 지역단장 및 역대 단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등이 참여해 종단 대표 포교단체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날 취임한 김영석 제12대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 20년 역사를 만든 수많은 포교사들 활동과 11대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포교사는 1인 1전문분야 전법가로, 포교사단은 재가전문 포교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포교사단장은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사 수장으로 사명을 다하는 임무를 받는 자리"라며 "삼보를 받들어 포교하는 포교사로, 종단 외호신장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오늘 임원에게 임명장 만을 수여하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여법한 행사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포교사단이 앞으로 더욱 포교단체로 위상을 고양하고, 종단 핵심동력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12대 포교사단은 사찰과 연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포교 최일선은 사찰로 포교사들이 스님들과 일심으로 정진할 때 종단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총재 범해 스님이 2022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12대 집행부와 각 지역단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이임한 방창덕 11대 단장에게 감사패가, 11대 집행부로 활동한 이정기 포교사단 부단장을 비롯해 정청현, 정분남, 장건환, 윤나겸, 배동학, 이병연, 강의수 포교사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복지법인 원각, 12월 16일
탑골공원서 겨울점퍼 나눔
점퍼 300장, 장갑 400개
서울대 병원 등에서 후원

"어르신, 따뜻하게 입고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안이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서울 탑골공원 옆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은 12월16일 탑골공원에서 겨울 점퍼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회복지원각은 2018년 처음 점퍼 200벌을 준비해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에게 선물한 이후 매년 연말 점퍼 나누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병원과 법무법인 세종, (사)나눔과이음 등에서 점퍼 300개, 모자 · 장갑 각 400개를 후원 받아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탑골공원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이 든든한 한 끼 식사와 함께 손에 점퍼를 받아들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봉사를 나온 민일영 前 대법관과 강위동 후원회장이 합장 반배로 화답했다.

민일영 前 대법관은 2009년부터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15년 공직을 퇴임한 후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에 재직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2회씩 동료들과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날도 모자와 장갑, 빵을 후원했고, 동료 변호사들과 아침 일찍 나와 점퍼와 함께 배포할 제육볶음 도시락 포장도 함께 했다.

민일영 前 대법관은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점퍼와 장갑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마음이 훈훈하다"며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행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한 방한 물품과 도시락은 배포 1시간여만에 동이 났다. 고영배 사회복지원각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을 받아 점퍼를 못받고 돌아가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며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는 2018년 서울 낙원동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현재 위치인 탑골공원 옆 뉴파고다 빌딩 1층으로 이전했다. 2015년 3월, 무료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원력을 세워 매일 200~30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02)723-667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